공시에서 조달·금융까지 잇는 도시 ESG 순환구조

중국 베이징시 | 모종혁 통신원

베이징시는 2024년 「실시방안」을 통해 ESG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차원을 넘어 도시 차원의 정책수단으로 확대. ESG 정보공시를 중심으로 평가, 정부투자·정부조달, 금융,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정책체계를 구축.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기업의 ESG 평가 수준을 입찰·구매 과정에 활용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ESG 성과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도시 부도심을 ESG 시범지역으로 활용하여 기업 ESG 데이터의 수집·공유와 공공사업 적용을 시범 운영

ESG를 도시 차원의 정책체계로 구축

⊙ 베이징시 정부는 2024년 6월 「베이징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체계 고품질 발전 촉진 실시방안」(2024~2027)(이하 「실시방안」)을 발표

■ 「실시방안」은 ESG 정보공시 강화, 생태계 구축, 평가체계 발전, 실천 확대, 시범사업, 감독체계 구축, 서비스·보장체계 마련 등 7개 분야로 구성함

— ESG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공시, 평가·인증, 금융, 정부조달, 정부투자 및 도시 시범사업을 포괄하는 정책체계로 확대함

■ 베이징시는 「실시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ESG 관련 정책체계를 정비하고, 베이징 소재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시율을 약 70%까지 높이며, 2035년에는 ESG 체계의 고품질 발전을 법치화 단계로 전환하고, 정보공시·평가·실천·감독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함

ESG 정보공시를 정책체계의 출발점으로 활용

⊙ 베이징시는 ESG 정책의 첫 단계로 기업의 정보공시 표준화와 공시 확대를 추진

■ 기업이 국제·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ESG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사회조직을 위한 간편한 ESG 정보관리·공시 시스템을 지원함

서울연구원 Seoul Institute

— 생태환경, 에너지·자원, 시장감독, 인적자원·사회보장, 안전생산, 식품·의약품 안전 등 정부 부처의 행정 데이터를 질서 있게 개방해 공공 ESG 데이터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ESG 정보가 기업의 보고자료를 넘어 정부·금융기관·투자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데이터로 기능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ESG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 성과를 구체화

⊙ 베이징시는 정보공시와 함께 ESG 평가체계의 고도화를 추진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면서 녹색발전, 자원절약, 생물다양성, 안전생산 등 베이징시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있음

—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ESG 평가, 컨설팅, 정보공시 검증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정부조달을 통해 ESG 성과에 경제적 가치 부여

⊙ 베이징시의 ESG 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정부투자와 정부조달을 ESG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 정부투자 사업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녹색·저탄소, 자원절약, 생물다양성 등의 ESG 요소를 고려하고, 정부조달에서는 공급자의 ESG 평가 수준을 평가 가점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후 2025년 1월 정부조달 사업에서 ESG 보고서 공개 여부를 공급자의 낙찰 조건에 반영한 첫 사례가 시행됨

— ESG 평가 수준이 높은 기업이 정부투자와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때 일정한 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함

— 정부가 대규모 구매자라는 점에서 ESG 정책이 기업 내부의 자율적인 실천에 그치지 않고, 정부조달을 통해 공급업체와 협력기업으로 확산할 환경을 제공함

ESG 성과를 금융지원과 금융비용 절감으로 연결

⊙ 금융 분야에서는 ESG를 기업의 자금조달 조건과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

■ 금융기관의 ESG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ESG 관련 금융상품의 투명성을 높이며, ESG 성과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함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이를 통해 ESG 평가 결과가 단순한 기업 이미지나 평가자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연결될 수 있음

도시 부도심을 ESG 정책의 시범공간으로 활용

⊙ 베이징시는 도시 부도심을 ESG 혁신발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업 ESG 평가와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ESG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공사업 적용을 추진

■ 도시 부도심에서 ESG 데이터 수집·공유체계를 구축하고,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정부투자·정부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 도시 전체에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특정 지역에서 ESG 데이터와 조달·투자 정책을 결합해 실증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음

'공시→평가→조달·투자→금융'의 순환구조 형성

⊙ 베이징시의 ESG 정책은 정보공시를 기반으로 ESG 평가·등급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정부투자·정부조달 및 금융지원과 연계하는 정책수단의 연결구조

■ 정보공시는 ESG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평가는 기업의 ESG 수준을 비교·측정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조달과 금융은 평가 결과에 경제적 의미를 부여함

— 베이징시는 ESG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 검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ESG 평가 결과를 정부조달·정부투자와 금융지원에 연계하여 '성과의 검증→정책적 활용→경제적 유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

https://ggzyfw.beijing.gov.cn/hyzx/20250103/4878053.html
https://ggzyfw.beijing.gov.cn/hyzx/20251114/5332773.html
https://fgw.beijing.gov.cn/fgwzwgk/2024zcwj/bwqtwj/202406/t20240614_3727636.htm
https://www.beijing.gov.cn/zhengce/zcjd/202409/t20240918_3893998.html
https://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409/t20240918_3893924.html